

지역 소식통

정읍시, 가루쌀 안전 생산 현장기술 지도

정읍시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지역 내 246ha 규모의 가루쌀 전문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지난 6일 본격적인 현장 영농 지도에 나섰다.

시는 올해 3개 생산 단계와 협력해 대규모 가루쌀 재배 구역을 구축했다. 이곳에서 키우는 품종은 '바로미'다. 일반 밥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곧바로 제분할 수 있는 특수미다. 밀가루처럼 쓰기가 좋아 제과와 제빵, 면류 등 다양한 식품 가공 원료로 활용된다. 밀 지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장 지도는 파종부터 종자 소독, 고온기 육묘 요령, 제때 모내기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이뤄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7일 부안군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장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권익현 이사를 비롯한 재단 임원, 장학사업 후원자, 장학생 등 30명이 참석했으며 장학생 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재단 제2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재단은 반값등록금, 다지녀 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비전 장학금·취업학원비 지원금 등 4개 분야에 대한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지원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107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10억 67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수여식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후원자와 재단 임원들이 직접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집에서 병원까지 어르신 밀착 지원

정읍시 어르신 동행 전용 차량 '시동'... 병원 진료·약국 방문·귀가까지 책임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집에서 병원 진료와 약국 방문을 거쳐 귀가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무료 동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7일 오전 9시 20분, 고부면에 사는 노 어르신(78)의 자택 앞에 정읍시 마크가 찍힌 전기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다. 동행 안내원(매니저)의 부축을 받아 차량에 탑승한 노 어르신은 편안하게 이동해 오전 9시 40분 정읍아산 병원에 도착했고, 예약해 둔 진료를 무사히 마쳤다.

노 어르신은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 통합 돌봄 대상으로 지정된 사례다. 현재 병원 동행 서비스와 더불어 틈새 요양 기사 지원, 안전 손잡이 설치, 아산병원 가정 간호 방문 등 다채로운 혜택을 묶어 통합 지원을 받고 있다.

이날 노 어르신이 이용한 것은 정읍시가 이달부터 새롭게 선보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고향사랑기금 7000만 원을 들여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교통 약자 어르신을 위해 전용 차량과 안내원을 배정해 집을 나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돕는 맞춤형 문 앞(도어 투 도어) 지원 사업이다. 병원 도착부터 접수와 수납, 입원 과정과 퇴원, 약국 이동과 투약 설명 등 전 과정을 밀착해서 살핀다. 몸이 불편하지만 요양원 대신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통합 돌봄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꼼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 기관인 정읍시니어클럽에 보조금

을 지원해 차량 1대를 사고 집담 기사 1명을 채용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을 안내원으로 선발해 자격 취득과 이용자 안전 교육까지 모두 마쳤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근무 조건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최소 병원 방문 7일 전까지 전화로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차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수, 재해 취약지역 대상 예찰나서

산업단지 공사현장·고창읍성 서문 응성 복구현장 등 찾아

심덕섭 고창군수가 잠시 장맛비가 그친 지난 6일 오후 직접 재해취약지역을 찾아 방재 인프라와 주민 대피 체계를 전격 점검했다.

먼저, 심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 및 공사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현장 침수 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산업단지 공사현장은 일반 지대에 비해 지반 굴착과 성토 작업이 많아 집중호우시 하류 지역 공장과 인근 마을로 토사가 유입되는 대형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 군수는 현장 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사 구역 내 가설 배수로와 임시 침사지(토사 가리앉힘 장소)의 용량 확보 상태를 정밀 점검했

다. 특히 폭우시 사면 붕괴 위험이 높은 대규모 절토부(흙을 깎아낸 면)에 배수 천막 설치와 배수관로가 흩더미에 막혀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고창읍성 서문 응성 복구공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성곽 붕괴나 토사 유실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확인하고 사전 예찰강화를 주문했다. 아산면 소재지 상습침수지역은 지자체 중심의 일방향적 점검을 넘어 마을 지형과 재해 이력을 가장 잘 아는 마을 이장 및 주민들과 동행했다.

고창군은 현장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신속 정비하고, 집중호우 예보 시 관내 재해예방사업 현장,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피해 예방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민선 9기 군민 체감 실행 과제 발굴

권익현 군수, "군정 방향과 신뢰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 강조

부안군은 민선 9기 부안군정의 본격 출범에 맞춰 군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제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6일 열린 월요 간부회의에서 "민선 9기 군정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하반기 정 기인사도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군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역할을 바탕으로 전 부서가 속도감과 긴장감을 갖고 소관 업무 추진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각 부서에 민선 9기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와 소관 공약사업, 주요 현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 체감형 100일 실행 과제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실행 과제는 군민 불편 해소, 생활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력, 생활인구 확대 등 군민이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 9기 초반 100일은 앞으로 4년 군정의 방향과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 부서에서는 군민 눈높이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도움이 되며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행 과제를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부서별 실행 과제를 종합하고 향후 민선 9기 군민 체감형 100일 실행 과제 보고회 등을 통해 과제별 추진 가능성과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적극 건의

부안군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을 방문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방문에서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서해안 철도는 대한민국의 서해안길에 U자형 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교통 편

익을 증진하고 국가산업·물류망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인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가 반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새만금(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영광군~함평군~목포시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국내·외 무역 전진 기지로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국도 23호 왕복 2차선 구간(부안 행안~고창 흥덕) 5.9km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 국도 30호선(변산~진서~보안) 선형 개선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복분자와 링티, 새로운 변신 선보여

고창군·링티, 유통 활성화 협약... 링티 복분자맛 13일 공식 출시

고창군이 국내 프리미엄 건강 브랜드 (주)링티(대표 이원철)와 손잡고 고창 복분자 소비 확대와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나선다.

고창군은 7일 군청에서 (주)링티와 '고창 복분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대표 복분자 산지인 고창군의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주)링티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판로 확대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링티는 기능성 음료 전문기업으로, 체내 수분 흡수를 돕는 이온음료 형태의 분말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운동, 야외활동, 일상 건강관리 등 다양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 및 지역 농산물의 협업을 통해 새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주)링티는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링티 복분자맛' 제품을 오는 13일 공식 출시할 예정이며, 온



라인 공식몰과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복분자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대표 특산물이다"며 "(주)링티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고창 복분자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